

國內 최초 「아이디어뱅크」開設

아이디어의 企業化 및 出願유도……施賞도

本社 發明振興部내에 國內 最初의 아이디어뱅크가 開設 되었다.

本會는 産業 및 生活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實用化시키기 위해 지난 3월 2일 부터 아이디어뱅크의 업무를 시작했다.

本會는 아이디어뱅크를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들 가운데 分期別로 審査를 거쳐 實用化 가능성이 있는 것은 관련 企業에 실시를 알선하고, 特許·實用新案·意匠등으로 權利化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出願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접수된 아이디어는 年末에 우수한 것을 골라 施賞함 으로써 發明 분위기를 적극 造成해 나갈 계획이다.

그런데 접수대상은 産業 및 生活아이디어이며, 申請方法은 전화·서신, 직접 방문 신청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本會 發

明振興部 아이디어뱅크(557-1077.8)로 연락하면 알수 있다.

EC도 GSP 일부 改正추진

韓國등에 「開放압력」活用겨냥

EC(유럽공동체)가 GSP(일 반특혜관세제도)를 韓國등 선 발개도국에대한 市場開放壓力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그에대한 對策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C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해 美國이 아시아신흥공업국에 대해 知的所有權과 物質特許보 호 市場開放壓力수단으로 GSP EC를 活用함에 따라 EC역시 美國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 해 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

다. 이번에 추진중인 市場開放壓 力 대상에는 보험과 금융시장 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본적으 로 美國과 같은 정도의 壓力이 될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本會 人事

- ▲ 調査資料部 次長 權宅柱
〈前 發明振興部 次長〉
- ▲ 發明振興部 振興課長 張善基
〈前 調査資料部 弘報課長〉
(3月 2日字)

韓國의 知的所有權 保護조치

英에도 美와같이 適用바람직

제프리 패티 英國통상성차관은 『韓·英양국간의 보다 활발한 技術移轉과 協力을 위해서는 韓國의 知的所有權에 대한 保護조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韓·英기술이전 세미나의 개

막식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 서 패티차관은 이같이 밝히고 『美國에 대해 적용되는 수준의 制度的인 保護조치가 英國에도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㉞>

新 刊 案 內	
商 標 法	
— '87 改正版 —	
著 者 :	金 實 衡 〈本會研修部長〉
價 格 :	9,500원
판매처 :	韓國發明特許協會 資料販賣센터